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 연 수 국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 연수기간 : 2013. 3. 28.(목) ~ 4. 04(목) [6박 8일]
- 연 수 자 : 완도군의회의원 등 5명
[의원 4명, 공무원 1명]

의 원 조 인 호
의 원 최 찬 슬
의 원 신 의 준
의 원 박 종 연
주 무 관 김 광 필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목 차

I. 연수개요

<input type="checkbox"/> 연수개요	4
<input type="checkbox"/> 연수일정표	5
<input type="checkbox"/> 연수국 현황	6

II. 분야별 연구과제

<input type="checkbox"/>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7
---	---

< 핀란드(헬싱키) >

1. 원로원 광장	7
2. 올림픽 스타디움	10
3. 대성당	10
4. 암석교회	11
5. 세우라사리 야회민속촌	12
6. 실자라인 탑승	13

< 스웨덴(스톡홀름) >

1. 스웨덴 왕궁	14
2. 시청사	14
3. 바사호 박물관	15

< 노르웨이(오슬로,야일로,플롬,골) >

1. 송네 피오르드	16
2. 프로열차 탑승	17
3. 노르웨이 왕궁	17
4. 비겔란 조각공원	18
5. 바이킹 박물관	19

< 덴마크(코펜하겐) >

1. 인어공주 동상	20
2. 게피온 분수	21
3. 니하운 항구	21
4. 아마리엔보 궁전	22
5. 코펜하겐 자전거 도로시설	23

Ⅲ. 공식방문 기관 연수내용

- 선진 복지시설(양노원) 24
- 핀란드 농업협회 25
- 함마르비 친환경 신도시 26

Ⅳ. 기타 방문 도시 및 시설 현황 28

Ⅴ. 연수 후기

- 완도군 사회복지 및 공공분야를 위한 접목과제 30
- 국·도·군정 제안 32
- 연수소감 33

I. 연수개요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실태와 사회복지
•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사례 중심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국외 연수를 통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군정 대안 제시 등 의정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 연수기간 : 2013. 3. 28. ~ 4. 04. (6박 8일)

□ 연수지역

- 핀 란 드 : 헬싱키
- 스 웨 덴 : 스톡홀름
- 노르웨이 : 오슬로, 야일로, 플롬, 골
- 덴 마 크 : 코펜하겐

□ 연수인원 : 9명(완도군의회 5명, 강진군의회 4명)

- 연 수 자
 - 의 원 : 조인호의원, 최찬술의원, 박종연의원, 신의준의원
 - 공무원 : 김광필 주무관

□ 연수방법 : 공식기관 방문 및 현장답사

- 의정연수 전문업체에 위탁계약 추진

□ 연수 주요분야

- 복지국가의 공공시설 운영사례 비교 체험
- 시의회,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견학

□ 연수 일정표

날 짜	여행지	교통편	시 간	세 부 일 정 (I)	비고
제 1 일 3/28 (목)	인 천 핀 란 드 (헬싱키)	AY 042 전용 차량	11:15 14:20 오 후	인천 국제공항 출발 헬싱키 반타국제공항 도착 대통령 궁, 귀족회관, 헬싱키의 상징 대성당 등이 있는 40여 만개의 화장암 바닥으로 이루어진 <u>원로원 광장</u> , <u>올림픽 스타디움</u> , 핀란드의 대표적 작곡가인 시벨리우스를 기념해 만든 <u>시벨리우스 공원</u> , 각종 공예품, 기념품, 과일을 파는 노점천막을 구경할 수 있는 <u>마켓광장</u>	
제 2 일 3/29 (금)	(헬싱키)	전용 차량		북유럽 최대의 러시아 정교 교회인 <u>우스펜스키사원</u> , 루터파의 본산이며 30년의 세월을 들여 완성된 <u>대성당</u> , 암벽을 폭파해 만든 <u>암석교회</u> 북유럽 특유의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u>디자인 박물관</u> 핀란드의 깨끗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u>세우라사리</u> <u>야외 민속촌</u> 초호화 유람선인 실자라인 탑승하여 헬싱키 출발, 스톡홀름 향발	
제 3 일 3/30 (토)	스 웨 덴 (스톡홀름) 칼스타드 노르웨이 (오슬로)	전용 차량		[공식일정 - 예정] 함미르 친환경 신도시 시찰 중세의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독특한 멋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 시가지 시찰 <u>갈라스탄</u> 은 1982년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어진 <u>왕궁</u> , 스톡홀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u>대성당</u> , 화려한 벽면 있는 <u>시청사</u> 중식 후 칼스타드로 이동 (3시간 40분 소요) 석식 후 오슬로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하여 도착	
제 4 일 3/31 (일)	노르웨이 (구드방겐)	전용 차량		플롬으로 이동 송네 피요르드의 하이라이트 구간인 플롬~구드방겐 유람선 탑승	

날 짜	여행지	교통편	시간	세 부 일 정 (Ⅱ)	비고
제 5 일 4/01 (월)	(플 롬) (오 슬 로)	FERRY 열 차 전용 차량		플롬으로 이동하여 미르달까지 왕복하는 로맨틱 열차 탑승 플롬 라인 탑승하여 쇼스 폭포 등 절경 감상 오슬로로 이동 (약 5시간 소요)	
제 6 일 4/02 (화)	(오 슬 로)	전용 차량 DFDS		[공식일정] - 양로원방문 Haugtunet B2 i Alna-Leader Ms.Liljan Celius(23479761) &Karstein Lund-Oslo Komme Addr : Vestre Haugen 17 A-2nd Floor [공식일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Then round Tour okern Torvhall 노르웨이 국왕의 궁전인 <u>왕궁</u> , 중앙역에서 왕궁까지 이어지는 오슬로 대표적인 변화 가인 <u>카를요한 거리</u>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프 비겔란의 작품이 있는 <u>비겔란 조각공원</u> , 바위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채인 <u>아케로스투스 요새</u> , <u>바이킹 박물관</u> DFDS 승선	
제 7 일 4/03 (수)	덴 마 크 (코펜하겐) 핀 란 드 (헬 싱 키)	전용 차량 AY 666 AY 041		[공식일정] 코펜하겐 자전거 도로 시설 시찰 중세 덴마크 양식과 북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 건물인 <u>시청사</u> ,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를 테마로 1913년 조각가 에드바르트 에릭슨이 제작한 <u>인어공주 동상</u> , <u>계피은 분수</u> 한때 선원들에게 술집 거리로 유명했으며 고풍스런 건축물과 배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u>니하운 항구</u> 현재 덴마크 왕실의 주거지 <u>아마리엔보 궁전</u> 공항으로 이동 헬싱키 국제공항 도착 후 환승 헬싱키 국제공항 출발	
제 8 일	인 천		08:20	4/04(목)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 핀란드

- ◎ 국명 : 핀란드 공화국
- ◎ 수도 : 헬싱키
- ◎ 면적 : 한반도의 약1.5배
- ◎ 인구 : 515만명
- ◎ 민족 :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기타 사미족 및 러시아인 등
- ◎ 언어 : 핀란드어(93%) 및 스웨덴어(6%)는 공용어. 기타 사미어 및 러시아어 등
- ◎ 국가·의회형태 : 대통령제·의원내각제

♣ 특징

- ◆ 숲과 호수의 나라로서, 전국토의 75%가 삼림이고 전국토의 10%가 호수
- ◆ 여성 국회의원이 75명으로 38%, 기업주 33%가 여성
- ◆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여성(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총리: 아넬리 예텐마이키)
- ◆ 사우나의 원조 : 전국에 1.6백만 개의 사우나가 있음. (인구 3명 당 1개).
- ◆ 기타 : 산타클로스 마을, 자일리톨껌, 노키아 등으로 유명

□ 스웨덴

- ◎ 국명 : 스웨덴
- ◎ 수도 : 스톡홀름
- ◎ 면적 : 44만 9,964km² (한반도 2배)
- ◎ 인구 : 930만명
- ◎ 민족 : 북구 게르만족(95%), 라프족(0.2%)
- ◎ 언어 : 스웨덴어
- ◎ 국가·의회형태 : 입헌군주국·내각책임제

♣ 특징

- ◆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
- ◆ 인구의 87% 정도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루터교를 믿음
- ◆ 스톡홀름(stock=목재, holm=섬)은 과거에 목재의 집결지로서 경제 중심지
- ◆ 교육열이 매우 높으며 9년제 의무교육 실시
- ◆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실업수당 제공

□ 노르웨이

- ◎ 국명 : 노르웨이
- ◎ 수도 : 오슬로
- ◎ 면적 : 38만 6,963km²
- ◎ 인구 : 460만명
- ◎ 민족 : 게르만족, 켈트족
- ◎ 언어 : 노르웨이어
- ◎ 국가·의회형태 : 입헌군주국·내각책임제, 단원제

♣ 특징

- ◆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
- ◆ 인구의 94% 정도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루터교를 믿음 (헌법상 국교)
- ◆ 전국토의 97% 산악지대이며, 3% 정도만 경작이 가능
- ◆ 풍부한 수력발전과 북해 유전 및 천연가스 생산
- ◆ 국민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전국민에 대한 무료교육, 의료혜택, 실업수당, 노후연금 등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완성

□ 덴마크

- ◎ 국명 : 덴마크왕국
- ◎ 수도 : 코펜하겐
- ◎ 면적 : 4만 3,094km²
- ◎ 인구 : 545만명
- ◎ 민족 : 북게르만계 노르만족의 한 분파인 데인족
- ◎ 언어 : 덴마크어
- ◎ 국가·의회형태 : 입헌군주국·내각책임제, 단원제

♣ 특징

- ◆ 북부 북해 연안의 유틀란트반도 및 동쪽 해상의 부속 도서로 구성
- ◆ 인구의 88% 정도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루터교를 믿음 (헌법상 국교)
- ◆ 낙농업이 유명하고 식료품, 철강, 화학, 기계공업 등이 발달
- ◆ 사회보장비가 국가 예산의 1/3을 차지

Ⅱ. 분야별 연구과제

□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 분야

1. 핀란드(헬싱키)

○ 원로원 광장



알렉산테린 거리의 동쪽 끝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이며, 약 40만개에 달하는 화강암이 깔려있는 정사각형의 광장으로 중앙에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서있다.

이 동상은 과거 핀란드를 지배했던 러시아 왕의 동상인데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식민지 생활을 할 때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광장 정면에는 핀란드 루터파의 총본산인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밝은 녹색을 띠고 있는 산화된 구리 돔과 흰색 주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각종 종교행사가 광장에서 열리고 주말에는 마켓이 자리하여 공예품, 기념품, 과일 등을 파는데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올림픽 스타디움



1952년 개최된 헬싱키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시벨리우스 공원 동쪽에 위치해 있다.

야로 린데그렌과 토이브 잔티에 의해 제작된 것이며, 높이 72m의 타워에 올라가면 경기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스포츠 박물관에는 핀란드 스포츠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타워는 경기가 없는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스타디움 앞에는 핀란드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인 파보 누르미의 상이 있다. 파보 누르미는 1920년대 올림픽에 3차례(1920, 1924, 1928) 출전하여 장거리 육상 종목에서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지금까지 핀란드 국민 영웅으로 남아 있다.

○ 대성당



1852년 러시아 지배하의 공국으로 있었을 때 지어졌으며 건립당시에는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핀란드 루터파 교회의 총본산이다. 헬싱키 대성당이라고도 한다.

헬싱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며, 1830년에 착공해 1852년에 완공되었다.

예전에는 성 니콜라스(St. Nicholas) 교회 또는 단순히 '큰 교회'라고 불렸다. 카를 루빙 엔겔(Carl Ludvig Engel)이 설계한 신고전주의 왕궁 스타일의 이 건축물은 밝은 녹색 돔과 하얀 주랑이 조화를 이룬다.

중앙 돔은 네 측면 어디에서도 보이며, 아연으로 만들어진 지붕 위에는 예수의 12제자의 동상이 있다.

처음에는 중앙의 돔만 있었으나, 후에 네 귀퉁이의 돔이 보완되었는데, 이 건물은 바다에서 바라볼 때 한층 아름답다. 오늘날 핀란드 인구의 85%인 4백 40만 명이 루터파 교회의 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이곳에서는 각종 국가적인 종교행사가 거행되며 전시회,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등 대학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겸한다.

○ 암석교회



암석 교회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템펠리아우키오 교회는 루터교 교리와 핀란드 자연환경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건축가 겸 가구 디자이너였던 티모(1928년생)와 투오모(1931~1988년) 수오말라이넨 형제는 1961년 공모를 통해 이 교회 건축의 설계를 맡게

됐다. 형제는 암석을 쪼아내 공간을 만들고 그 위를 원형 유리로 덮어서 자연광이 잘 들어 올 수 있는 교회 건축물을 설계했다.

내부 좌석도 제단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했으며, 암석을 파내어 내부를 만들면서 자연 상태 그대로 남겨 두었던 암석 일부가 교회 건축 내부를 장식하고 있다.

그들은 실내의 의자도 최대한 단순하게 제작했고, 불규칙한 돌 표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식도 모두 생략했다. 음향 전문가와 지휘자가 처음부터 건축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음악회가 자주 열릴 정도로 뛰어난 음향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교회는 검소한 루터교 교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주변의 자연물과 빛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예배당 안에 들어온 이들이 종교적 의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내부 벽에서는 이끼가 자라고 있어 생명이 느껴진다. 이끼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영원한 삶에 대한 기독교적 메시지를 들려주는 듯하다.

교회는 마치 땅속에서 솟은 듯 보이기도 하며,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외형을 이루는 암석 벽은 극한의 기후와 화염포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핀란드의 숲을 연상시킨다.

○ 세우라사리 야외민속촌



세우라사리 민속촌(Seurasaaren ulkomuseo)은 헬싱키 반도 서쪽 끝 부분에 자리한 작은 섬 안에 위치하며, 세우라사리 섬은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야외 민속촌에 있는 건축물들은 핀란드 각 지역에서 직접 옮겨온 18~19세기의 다양한 살림집들과 교회, 그리고 배를 보관했던 창고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옛날 조상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고 숲속을 산책하면서 휴식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실자라인 탑승



1957년에 최초로 핀란드 투르크~스웨덴 스톡홀름 구간 운행을 개시한 이래 그 영역을 넓혀 현재는 에스토니아 탈린까지 운항하고 있다.

유람선 규모를 살펴보면 총 길이가 200m 이상이며 너비는 31.5m이고 2,800여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유람선 내 5·8·9·10·11층은 객실이고, 3·4층은 자가용 4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고, 6·7층에는 안내데스크를 포함하여 카지노·면세점과 각종 식당 및 상가가 갖추어져 여느 도심의 중심가를 방불케 하고 12·13층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유명한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나이트클럽과 시원하게 뚫린 너른 갑판이 있다.

실자라인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다.

2. 스웨덴(스톡홀름)

○ 왕궁



스톡홀름의 구시가지, 감라스탄에 위치한 왕궁은 608개의 방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궁으로 이탈리아 바로크 풍으로 건설된 건물로 역대 국왕이 거쳐하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외국 귀빈을 위한 만찬 회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3층 규모의 건물 내부에는 도자기와 유리그릇, 태피스트리 등이 전시된 베르나도트의 방, 12명의 역대 국왕과 왕자의 왕관, 보물이 전시되어 있는 보물관, 12세기에 건조되어 17세기 말에 소실된 구왕궁의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왕궁박물관 등이 있다.

○ 시청사



스톡홀름 시청사는 리다르프예르덴의 제방 위에 아름답게 서 있다. 외스트베르그의 우아한 작품은 그 입지를 완벽하게 보장하고도 남는다. 두 개의 안 뜰은 사무실과 의전용 공공장소를 연결해주며, 그 위로는 우아하고, 위로 갈수록 완만하게 좁아지는 106미터 높이의 탑이 서 있고, 외관에는 어두운 붉은색의 수제 벽돌을 사용하였다.

내부는 스웨덴의 예술과 수공예에 바치는 건축적 찬가이다. 열다섯 쌍의 어두운 대리석 기둥이 열주를 이루는 “왕자의 갤러리”는 스웨덴의 오이겐 왕자가 직접 그린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푸른 홀”은 지붕이 있는 안뜰로, 보통 연회장으로 쓰이며, “황금 홀”은 위엄 있는 공간이다. 16세기 프랑스 튀르올 태피스트리가 시민들의 결혼식장으로 쓰이는 타원형 홀을 장식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의회 의사당은 바이킹의 배를 연상시키는 열린 천장을 자랑한다. 외스트베르그는 또 스웨덴 최고의 수공예 장인들을 고용하여 장식과 가구를 맡겼다. 시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12년의 세월이 걸렸다. 노벨의 고향이자 노벨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은 여기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 바사호 박물관



현존하는 배로는 가장 오래된 전함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스웨덴의 국력이 막강했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 왕 시대에 건조한 이 전함은 독일의 30년 종교전쟁에서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 당대 최고 과학과 예술의 집합체로 3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1628년 8월 10일 전함이 스톡홀름 항을 출발한지 15분만에 수심 32m 바닷속으로 침몰하였다.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강풍에 의하여 침몰하였거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포를 무리하게 선적하는 바람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다는 설만 있을 뿐이다. 바사호가 발견 된지 333년이 지난 1961년에 인양되어 30년 동안의 보존 작업을 거쳐 1999년 박물관을 개관되었다.

3. 노르웨이(오슬로,야일로,플롬,골)

○ 송네 피오르드



피오르드란 바닷물이 내륙에 들어와 만든 좁고 긴 만(灣). 그러니까 빙하가 흐르던 빈 공간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피오르드가 노르웨이의 '송네' 피오르드다. 길이 204Km, 최대 수심은 1,308m, 주변의 산 높이는 1,500~2,000m에 달해 전체 계곡의 깊이는 무려 3,000m나 된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경관이 너무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해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 프롬열차 탑승



프롬열차(Flamsbana)는 프롬(Flam)에서 미르달(Myrdal)까지 20Km, (고도는 2m에서 866m,)거리를 약1시간에 주행한다. 철도의 80%이상이 경사가 55도 이상이고, 터널이 20개나 있다.

프롬(Flam) 철도만큼 정상궤도로 이처럼 가파른 협곡을 운행하는 기차는 세계 어디도 없다고 한다. 플롬(Flam) - 미르달(Myrdal) 간 거리가 20km이고, 터널도 모두 20개에 공사 기간도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열차를 타고 협곡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창 밖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펼쳐 놓은 듯 장관이다.

○ 왕궁(국왕의 궁전)



오슬로(Oslo)에 있는 노르웨이 국왕의 공식 관저이다.

1849년 스웨덴 - 노르웨이 연합 왕국의 국왕 칼 14세 요한(Charles XIV John, 1763~1844)에 의해 지어졌으며, 현재는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Harald V)의 관저이다.

덴마크 태생의 건축가 한스 린스토우(Hans Linstow)가 설계하였고, 1824년부터 2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칼 14세 요한의 사후인 1849년 완공되었으며, 3층 건물로 173개의 객실이 있으며, 현관 · 그레이크홀 · 응접실 · 내각회의실 · 연회홀 · 궁전 예배당 등이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왕궁과 비교하면 화려한 장식이 없는 소박한 편이다. 왕궁 앞에는 카를 14세 요한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왕을 겸하던 시절에는 대개 스톡홀름에 머물면서 잠시 방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1905년 이후 노르웨이 독립국의 국왕으로 즉위한 하콘 7세(Haakon VII)때부터 영구적인 궁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정문과 담장을 없애고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오슬로 시민의 대표적인 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일 오후 1시 반에는 왕실 근위병 교대식 행사가 열린다.

○ 비겔란 조각공원



오슬로 프로그네르 공원(Frogner Park)의 일부이다. 1900년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인 비겔란(Gustav Vigeland, 1869~1943)이

분수대 조각을 작은 규모로 만들어 오슬로 시(市)에 기증하였다. 시위원회에서는 국회 앞에 비겔란의 작품을 세웠다가 반응이 좋아 이 전의 프로그네르 공원과 연계시켜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비겔란은 10여 년 동안 청동, 화강암, 주철을 사용해 사람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희로애락을 200여 점의 작품에 담아냈다. 공원 끝부분에 있는 '모놀리트(Monolith)'는 무게 260, 높이 17.3m의 거대한 화강암 기둥에 121명의 남녀노소가 서로 정상을 향해 기어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부조되어 있는 탑으로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 준다.

○ 바이킹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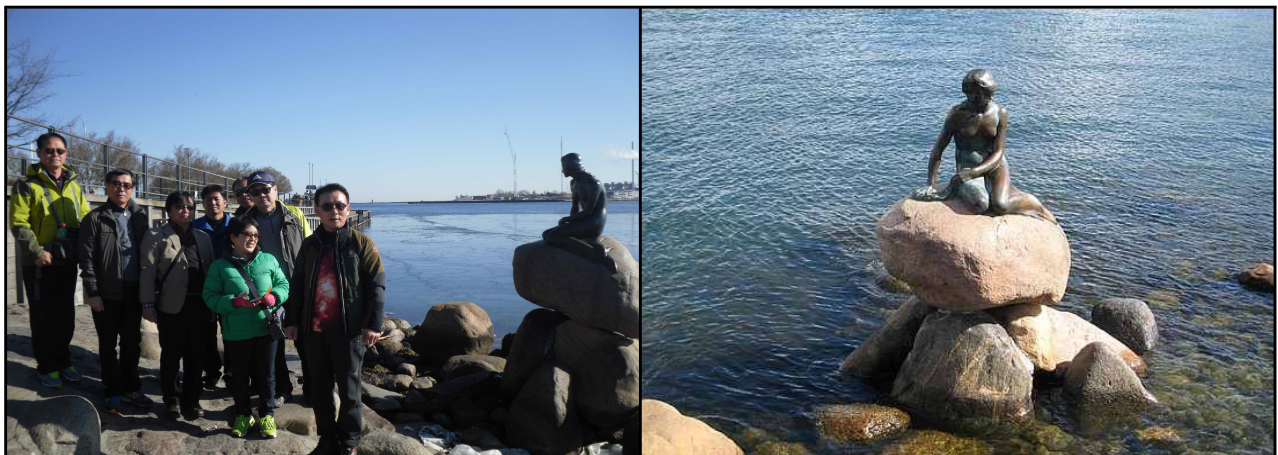


바이킹 박물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있는 박물관이다.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배에 관한 자료를 주로 전시한다. 오슬로의 유명 관광지인 뷔그도이(Bygdøy)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바이킹 박물관 설립을 처음 제안한 인물은 스웨덴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가브리엘 아돌프 구스타프손(Gabriel Adolf Gustafson, 1853~1915)이다. 그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발견된 세 척의 바이킹 배를 보관할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노르웨이 국회의 지원으로 1926년부터 배를 보관할 공간이 마련됐다. 이후 세 척의 배는 오슬로대학교 문화역사 박물관(Museum of Cultural History)의 주도 아래 한 장소로 다시 옮겨졌고 바이킹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주요 전시물은 오슬로에서 발견된 오세베르그(Oseberg), 고크스타(Gokstad), 투네(Tune) 등 3척의 배와 그 안에서 발견된 유품들이다. 당시 바이킹들은 지도자 등의 장례를 치를 때 배도 함께 바다에 수장시키는 풍습이 있었는데 세 척 모두 장례를 위해 사용된 선박이었다. 이 가운데 대표 격인 오세베르그는 800년대에 약 50년 동안 여왕 전용선으로 이용됐던 배로 여왕의 장식품 등 다양한 유품들이 함께 발견됐다. 오세베르그는 바이킹 선박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32인승 고크스타는 전형적인 바이킹 배의 모습을 하고 있고, 투네는 배의 밑바닥 부분만 남아 있다.

4. 덴마크(코펜하겐)

○ 인어공주 동상



인어공주 동상(Statuen af Den lille Havfrue)은 코펜하겐의 상징으로 안데르센의 “인어 공주” 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가 에릭센이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1913년 칼스버그 맥주 2대 회장이 조각가 에드바르트 에릭슨에 의뢰하여 제작한 후 국가에 기증하였다. 길이가 80cm에 불과한 작은 동상이지만 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코펜하겐의 상징이다. 2003년 9월 11일에는 폭탄공격으로 머리와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완전히 파괴되어 바다로 던져지는 등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한다.

코펜하겐의 랑겔리니 공원의 끝부분에 있으며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 게피온 분수



아말리엔보르 궁전 앞 광장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시청사 광장에 설치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항구가 바다다 보이는 시타델 부근에 세웠다.

1908년 조각가 안데르스 분드가르드가 주조한 분수로 게피온은 덴마크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그녀가 스웨덴 왕과 내기를 해서 하룻밤 동안 경작한 땅을 받기로 약속하고 여신의 자식 4명을 거대한 소로 변신시켜 땅을 갈았는데 그 결과로 받아낸 땅이 코펜하겐이 있는 셸란 섬이다.

이런 전설을 담고 있는 게피온 분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니하운 항구



니하운 운하 주변 지역으로 니하운은 “새로운 항구” 라는 의미이다. 유틀란트반도 국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1673년에 개통된 운하로서 발트해와 북해를 나누는 위치에 있다.

운하 남쪽에는 18세기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하고, 북쪽에는 네모난 창이 많이 달린 파스텔 색조의 건물이 화려하게 이어져 있다.

운하 주변에는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으며 노상에서 직접 식사, 음주, 음료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예전의 선술집과 문신집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바다와 레스토랑의 환상적인 조화로 세계 관광객들과 자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 아마리엔보 궁전



현재 덴마크는 AD 500년경에 농경을 주로 하는 Angles 및 Jutes라는 부족이 처음으로 집단부락을 형성하였으며, 1940. 4. 독일군의 침공 이후 인적·물적 희생이 컸으나, 전후 미국의 Marshall Plan의 혜택으로 파괴된 기간산업시설, 전력부문, 농업분야 등의 복구가 이루어진다. 현재는 사회복지정책이 잘 구비되어 있는 선진국으로서 특히 산업기계분야, 낙농분야 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복구 지역과 유럽 본토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 왕실 아마리엔보 궁전은 현 국왕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국왕이 건물에 있을 때는 깃발이 걸려져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깃발이 내려져 있으며, 궁전 앞 경계병들의 교대식은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 코펜하겐 자전거 도로시설



코펜하겐 시에서 1923년 세계 최초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한 도로법을 선포하고, 도시 전체에 전용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코펜하겐 시내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고안한 고속도로 'C99' 24km 구간이 지난 4월 완공됐다. C99는 총 300km 전체 26개 고속도로 중 첫 구간이며 나머지 25개도 구축 중에 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 거리는 전체 400km가 넘는다.

국제 사이클 연맹(UCI)에서도 2007년 세계 첫 자전거 도시(Bike City)로 인정받았다.

덴마크는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코펜하겐 수도권(200만)에 밀집해 북유럽 국가 중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차량 가격보다 높은 자동차세와 도심 통행 제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과 미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코펜하겐을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으며, 자전거 고속도로에 자전거 교통 수단율 50%(2015년), 화석에너지 제로 재생에너지 100%(2050년)를 목표로 하고 있다.

Ⅲ. 공식방문 기관 연수내용

□ 선지 복지시설(양노원) 방문



○ 운영시간

- 주 중 : 09:00 ~ 16:00
- 토요일 : 09:00 ~ 20:00
- 일요일 : 09:00 ~ 15:00

○ 운영현황

- 시설물 운영은 국가나 시에서 전액 지원 되는게 아니라 전국 양노원 협회와 5 대 5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자원봉사자 담당하고 있다.
- 정년(일반 62세, 공무원 67세)이 지나면 누구나 시설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은 아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언어, 컴퓨터, 여행, 건강관리, 물리치료, 여가 선용 등)을 이용하거나 참여가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액(한화 3~4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 노-노 Care 관리 시스템을 운영 거동에 불편이 없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말동무, 집안 청소 등)을 주고 있다.

□ 핀란드 농업협회



○ 현 황

- 농업인구 : 75만명(전체 인구 대비 15%)
- 경지면적 : 275만ha(국토의 8%)
- 주요작물 : 밀, 호밀, 보리, 감자, 각종 야채 등

○ 특 징

- 농업지역은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 이북지방은 심한 서리 피해를 자주 받음.
- 소가족 농장으로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작지만, 임업과 목축 등을 겸업함으로써 농가 소득은 높은 수준임.
- 식용작물과 함께 목초, 버터, 치즈 등이 생산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기를 제외하고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음.

- 농업수입의 45%는 유제품, 34%가 식육, 11%가 곡물판매에서 얻어지며 삼림은 핀란드 제1의 천연자원이며 삼림 속에서 각종 들딸기류와 버섯류가 채집되어 식용으로 공급되고 있음.

□ 함마르비 친환경 신도시



○ 도시현황

- 함마르비는 과거 항만 시설과 화학폐기물 매립장이 밀집했던 소도시였으나, 에너지 공급,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등 3개 도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신 개념 미래지향적인 도시다.

○ 친환경에너지 생성과정

- 음식물의 철저한 분리수거,
- 저장탱크에 보관된 음식물을 차량으로 수거,
- 웨그달렌 열병합발전소로 운반,
-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발효시켜,
- 이산화탄소,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 친환경에너지 특징

- 발전, 난방, 차량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1Km³로 차량이 1,200Km 정도 운행할 수 있다. (시내버스 100%, 택시 60%, 차량 20%가 친환경에너지 사용)
- 휘발유보다 10~15% 저렴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고 오염물 배출이 적으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한다.

○ 기타

- 우리나라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쏟아 최근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처리 및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짓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던 곳이다.

IV. 기타 방문 도시 및 시설 현황

□ 시벨리우스 공원



- 시벨리우스 공원은 『핀란드야』라는 곡으로 조국 핀란드를 찬양하는 교향시를 만들었고, 과거 핀란드가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핀란드인의 민족의식과 핀란드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만든 곡으로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심어 주었던 민족 작곡가이며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1967년 핀란드 여류 조각가 에일라 힐투넨(Eila Hiltunen)이 시벨리우스 사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600개의 강철 파이프를 사용하여 24톤 무게의 파이프오르간 모양의 조형물인 시벨리우스(Sibelius) 기념비와 시벨리우스(Sibelius)의 두상은 공원의 상징물이자 헬싱키를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 공원 주변엔 바다가 있으며 공원 내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되어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다. 특히 이 공원은 헬싱키 시민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으며 핀란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 한다.

□ 마켓광장



-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은 구시가지 중심부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벼룩시장이 선다고 한다.
여기가 헬싱키를 대표하는 벼룩시장인 마켓광장으로 원로원 광장에서 가까운 발트 해가 연결해 있는 항구에 위치하고 있다.
- 마켓광장은 평일에는 6시쯤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장이 서고, 일요일은 쉰다고 한다. 그러나 5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야시장도 열린다.
- 광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싱싱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생선은 물론 각종 공예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풍부한 먹거리(햄버거, 훈제, 기타 고기요리 등) 등이 다양하게 준비된 곳으로 가족, 연인, 친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V. 연수 후기

□ 완도군 사회복지 및 공공분야를 위한 접목과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활용·접목할 과제】

-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
 -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의식을 고취시켜 노약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에 안전한 보행권 보장
 - 노년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자연 휴식 공간 확보
 -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확충

【공공시설 측면에서 활용·접목할 과제】

- 옛날 우리 지역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 물결 속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린 옛 지역민들의 삶을 재현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 완도의 색다른 관광 상품으로 개발

【시사점】

북유럽(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은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지하자원 등이 풍부하다. 복지제도가 완벽한 만큼 국민들의 삶에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겸손하고 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지구의 급격한 온난화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천연 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생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웅장하고 섬세함이 아름다운 옛 건축물들과 천혜의 자연 풍경 등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국가들이다.

수준 높은 교육열과 국민성이 북유럽의 기상 조건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군은 “건강의 섬 완도”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잘 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 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완도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할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과 의식 또한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완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겠지만 선진복지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 우리에게도 온 것 같다.

□ 국·도·군정 제안

【가정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1.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 구축

- 관련법 제·개정(민법, 아동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
 -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정부가 그 부모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
- 관련부서 종사자(공무원 등) 권한 강화(사법권 등)
 - 정부에서 요청 한 아동보호 상담 불이행 등 아동학대 가정 상시 감시기능
 - 상담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강제(구인 등)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를 위한 복지센터 운영

- 광역시·도 단위(점진적 기초단체 확대) 아동복지센터 설치
 - 우리나라에는 여러 복지시설들이 있지만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관리하는 시설 미흡 → 정부에서 적극적 관리 필요
 - 광역시·도 단위에 아동복지센터 설치 → 기초자치단체와 네트워크 운영
- 일반인과 같이 대화 할 수 있는 청소년 창구 마련
 - 가정에서 방치에 따른 청소년 범죄예방
 - 범죄관련 청소년 상담을 통하여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
- 정부의 가정 아동학대 적극적 개입
 - 현재 부모 등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 정부에서 가정학대 등 가정에서 방치를 받는 아동 관리

□ 연수소감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이번 연수는 우리군 의회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1명 그리고 강진군 의회 의원 3명, 수행공무원 1명과 함께 2013년 3월 28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북유럽국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 선진 국가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특히, 전복의 고장 완도군과 청자의 고장 강진군이 함께 떠나는 국외 연수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양 의회간의 의회 운영실태 및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큰 기대와 막중한 부담감이 함께 했다.

우리 일행은 2013년 3월 28일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11시 15분 비행기로 10여 시간을 비행해서야 첫 방문지인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하였다. 핀란드하면 사우나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대성당, 원로원 광장, 올림픽 스타디움, 시벨리우스 공원, 마켓광장 등을 돌아보면서 그 옛날 문화 유물들을 잘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는 양주시 의회에서 연수를 오신 의원님들과 2014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적극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노르웨이에서는 복지시설(양노원)을 공식 방문하여 총 책임자로부터 시설의 운영실태와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여러 시설 등을 둘러 보면서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군도 향후 선진복지국가들의 복지 문화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되었다.

이번에 북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문화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국가들만의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관 그리고 국민성을 알 수 있었고, 좋지 않은 기후 환경 속에서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에 세삼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것만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견문을 넓혀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연수소감

완도군의회 최찬술 의원

2013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인근 강진군 의회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진복지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4개국을 대하여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운영실태와 복지사회 및 공공시설 등을 견학하고 그 국가들의 제도, 문화 등을 비교·연구하여 우리군에 접목시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떠났던 연수였다.

우리 일행은 3월 28일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 넘게 비행을 한 끝에 목적지인 헬싱키에 도착하였다. 처음 방문해본 북유럽이라 날씨부터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도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쌓여있었고, 날씨는 싸늘했다.

여러 관광지와 시가지를 견학하면서 느낀 점은 도로는 깨끗했고, 건축물들은 웅장하면서 섬세했으며, 자연은 신비로울 만큼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산들이 좋아서 생수는 아무데서나 구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청정지역 이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웅장하고 섬세한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성에 세삼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특히 스웨덴의 함미르 친환경 신도시는 정말 충격이었다. 우리는 값비싼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절약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이 높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에서는 절약 정신이 철저하며 지구 온난화 예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의식도 확고한 듯하다. 이곳은 그 옛날 항만 시설과 화학폐기물 매립장 밀집 지역 이였으나, 에너지 공급,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등 3개 도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신 개념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라 한다. 이곳 웨그달렌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는 발전용, 난방용, 차량용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는 100%, 택시는 60% 일반 차량은 20% 까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니 참으로 본받은 만한 선진국가 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던 곳이고, 최근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처리 및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이 도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현재 한창 시설중이라 한다.

우리군도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철저히 할 수 있는 주민 의식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연수소감

완도군의회 신의준 의원

“세상은 넓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것은 간혹 신청한 바 있으나, 북유럽의 4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을 직접 방문하는 건 처음으로 우리군 의회와 강진군 의회 의원들이 함께 선진국의 의회운영실태 및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을 견학하고 체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된 사례들은 군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처음 목적지인 헬싱키에 도착하자 주위엔 온통 하얀 눈으로 가득했고, 날씨도 우리나라 보다는 더 춥고 쌀쌀했다. 우리나라 보다는 위쪽에 위치한 나라들이라 기후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서민적이면서 저마다 여유가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즐기며 산다는 건 행복이 아닐까 싶다. 또한 국민들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지켜주려 노력하는 국가 행정력에 경의를 보낸다.

이들 국가들 시내 곳곳에 공원묘지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 때문이었다. 이들의 장묘 문화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안치하고 자주 찾아와 꽃을 놓고 고인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말 그대로 공원 분위기가 물씬 풍겨 평소 주민들이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어 이들의 공원묘지와 우리의

공동묘지의 차이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한 분파인 루터교를 믿는 모계사회로 남성보다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 분위기다.

결혼보다는 동거 위주의 사회, 철저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사회,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는 사회, 주말에는 트럭 운행이 전면 금지되어 교통체증이 없다한다. 이 또한 주말을 즐기려는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하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 바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맞는 것 같다. 부유한 만큼 물가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찬란한 밤 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어둡고 고요하다. 친환경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보니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 불필요한 조명과 네온사인은 켜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이 왜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이며 국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 연수소감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원

북유럽의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들을 탐방하기 위해 강진군의회와 함께 인천 공항을 거쳐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 도착했다.

핀란드는 비교적 겨울이 춥고 길다한다. 그래서인지 눈과 사우나 그리고 산타크로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며 IT기술, 선박산업이 발달되었고 세계적인 기업 노키아가 있다.

국민 소득이 높아 물가는 비싸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은 순수해 보이고, 휴일에는 시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휴일을 즐기기 때문에 휴일에 오히려 시내가 한가한 나라다.

가는 곳마다 옛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공원들은 하나 같이 인위적인 시설물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꿔주는 수준으로 편안함을 안겨 준다.

시내는 30~40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시골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시내와 인접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남한의 3배 면적으로 특히 숲이 많고 호수와 섬이 많은 나라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도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이번 연수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시에서 1923년 세계 최초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한 도로법을 선포하고, 도시 전체에 전용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코펜하겐 시내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고안한 고속

도로 'C99' 24km 구간이 지난 4월 완공되어 자전거 전용 도로 거리는 전체 400km가 넘는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제 사이클 연맹(UCI)에서도 2007년 세계 첫 자전거 도시(Bike City)로 인정받았다한다.

『환경과 미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코펜하겐을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한다. 이는 도로가 짧고 주거지가 모여 있는 우리군 여건에서도 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